

예술인 열전 | 2015 이시대의당진 문학인, 윤성의

당진 문학 40년사의 산증인, 윤성의 시인



바보 안경

내 안경은 바보다
면 것은 잘 보면서

코앞의 글자에
까맣게 눈감는다
나이는 내가 먹는데
왜 제가 망령인가

우주너머 먼별을
더듬는 밝은 눈이

늙은 부모 아픔은
까맣게 눈감는다

고약한
세상인심을
안경도 닦나보다

윤성의 육필 시조집
[나를 찾습니다] 수록

시조 짓는 老 시인이 글을 대하는 자세

“나이 먹은 사람의 글이란 게 딱 나오죠?”
‘바보 안경’ 너머 윤성의 작가가 웃는다. 안경을 쓰고도 가까운 것이 안 보인다는 시인의 이야기는 노안 증상을 통해 나이 들을 말하는 것. 자신의 나이 들을 먼저 알아차린 안경에게 통을 놓는 화법이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읽는 이의 마음을 건드리는 무엇이 있다.

올해 팔순의 작가는 느지막이 시작한 시조 짓는 일을 여전히 즐기며 산다. 세월은 거스를 수 없어 ‘바보 안경’을 새 것으로 바꾸어도 눈은 침침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일도 어렵다. 허나 그것이 시조 짓는 일을 멈추게 하진 못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조를 지으며 당진 지역 문학사의 산증인이 된 윤성의 시인. 한 여름의 복판에서 ‘2015 이시대의 당진 문학인’으로 선정된 그를 만났다.

나루문화회에서 시작된 문학 활동

인터뷰는 곧바로 나루문화회 창단 초창기인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시인은 40년 전 이야기를 기억을 더듬느라 멈춰서는 법도 없이 단숨에 풀어 놓았다. 그가 전하는 나루문화회의 역사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그대로 ‘당진 문학사’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는 지난해 12월 당진문화재단이 펴낸 <당진 문학 4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았다.

윤 시인은 첫 직장생활을 타지에서 시작했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다시 찾은 고향에서는 친구도, 아는 이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이근배 시인을 만났다. 그와는 문학소년을 자처하던 고등학생 시절 함께 교내 백일장에 나가 1등상과 특별상을 나눠 가진 사이였다. 윤 시인은 그렇게 옛 동무인 이근배 시인의 권유로 나루문학회를 시작했다. 이후 농민문학을 통해 정식으로 등단했고, 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고향 사랑으로 시작한 향토문화연구

고향에서 문화회 활동을 하며, 그는 자연스레 당진의 의미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상록문화제 심훈문학상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 중 하나다. 운영비가 없어 전국 문학회에 일일이 협조문을 보내놓고 공모 작품을 기다렸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윤 시인은 젊은 시절 오래도록 타지 생활을 하며 고향이 늘 그리웠다. 그 때문인지, 당진에 대한 애착도 컸다. 당진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당진의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조

사하는 일에 열성을 다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지역에 묻혀 있던 향토사나 문화재 중에 직접 찾아낸 게 몇 되요. 그중에서 면천군자정에 얽힌 일인데요. 군사정 현판을 보고 건물이 지어진 시대를 밝혀냈죠. 그 뒤 그것에 관한 글을 썼는데 그만 연대를 잘못 봐서 정보가 틀린 글을 발표했어요. 이후에 잘못 났다는 걸 알고 정정했죠. 그런데 서울에 모 대학교수가 제가 잘 못 쓴 글을 그대로 보고 인용해 발표한 글을 보게 됐어요.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글 쓰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글 쓰는 사람의 자세, 우리말 아름답게 가꿀 의무

글을 쓰는 작가로서, 그에게 정확한 정보와 우리말 사용은 철칙과도 같다. 여러 갈래의 글 중에서 시조를 고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려 말기부터 발달한 한국 고유 정형시 중 하나인 시조는 평시조를 기준으로 할 때 3·4조의 음수율을 가지며 종장 첫 시작을 3음절로 해야 하는 등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형식을 갖고 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시조는 제약이 있는데 내 생각을 펼쳐내는 것이라 형식에 딱 맞아

떨어진 표현을 찾아냈을 때의 쾌감도 즐길 수 있어요.”

하고픈 이야기를 제한된 형식에 맞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자연히 시구 하나, 시 한 소절에 시간과 공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다. 이봉수 문학평론가는 이런 윤성의 시인의 작품을 두고 “변형시조의 흥수에 휩쓸려 외로이 떠내려가는 고고한 연꽃”이라 칭하며 “시조의 형식이 맞고 관념을 형상화한 수작”이라고 평했다(새시대시조/2008 겨울호).

▶ 2면으로 이어짐



사진으로 보는 세상 - 2016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

이재홍 작가_ (우강의 들녘)



2015 당진예술인 발굴사업 문학부문 당선작가의 시선

시 한편 | 고문무겸시인

큰물질때

-어머니-2

용란재 고개 넘어 다량밭머리
 원두막 과물의 만물 무렵,
 하늘이 열랄까 말까 꾸물대던 장날
 비 들어오시기 전
 재재바른 걸음으로 집에 올 때
 매꿨은 우레 번개와
 물을 많이 모은 당진천
 외나무다리 흥흥흥 넘쳐
 돌아갈 길이 묘연했습니다
 무시 댄 찰방찰방 건너던
 냇가의 물길기 수월수월 뚝릴 때를

마냥 기다리다 못해
 물살을 가르고 간신히 드러난
 외나무다리를 타고
 발길을 아슬아슬 떼어 옮겼습니다만
 급류의 어질머리 못 당하고
 곤두박질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덧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
 알고 보면 뭇 바이라는 저승을
 얼결에 엿보고 돌아왔습니다

» 당진문화재단은 2015년 <2015 당진예술인 발굴사업> 문학 부문에 유고작가로 고문무겸 시인을 선정, 유작 작품집을 출판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고문무겸 시인은 1948년 당진에서 태어나 <시와의식(1989)> 신인상으로 등단해 나루문학회장, 서안시문학회원, 한국시인협회원, 충남문인협회원으로 활동했다. 초부김용재향토문화상, 충남문학대상 등을 수상했다. 문무겸 시인은 문학에서 남다른 시적 감각을 지니고 작품 활동 중 2001년 9월 18일 별세했다.

편집자의 말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당진문예의전당 관 장

문화예술은 사회적 자본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관심 중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다. 현 사회의 당면문제 해결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했고, 그 하나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충남도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의 신뢰수준과 사회규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 사회의 효율성이나 직면한 문제해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의 총칭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다른 자본들과는 달리 개인이나 물리적 생산시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수혜자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이고, 자본의 연결망이 사회 공동체적 수준에 적용된다.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관계 속에 내재하는 자본이기에 경제적 자본이 아닌 도덕적 자본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경제자본, 인적자본과는 다르게 무형이지만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빈곤, 지역개발, 민주주의, 교육, 치안, 삶의 질 등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 정부는 사회적 자본을 '공공정책의 도구'로서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 문화예술이 과연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을까? 문화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점과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과거 문화예술이 단지 개인의 취미로,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현대에는 인간 삶의 질, 복지의 차원으로 변화하였다. 곧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발표된 '서울아젠다'는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직시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의 창의적·혁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위한, 사회적 책무·사회적 통합·문화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과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문화복지는 사회경제적 소외를 넘어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 불평등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 <세계문화보고서>에서는 '문화를 누릴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공동체를 변화시킨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무형의 자본이라면, 문화예술은 사회적 자본이다.



“변형 시조의 흥수속고고한 연꽃같은 시조”

▶ 1면에서 이어짐

“날말을 세심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문학하는 사람은 조국의 말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나 알아들을 수 없는 글들이 많아요. 문학은 무엇보다 세상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죠.”

윤성의 시인은 “<객주>를 쓴 김주영 작가가 대하소설을 쓰면서도 문맥에 맞는 날말을 찾느라 밤을 새워 사건을 뒤적이고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다”며 “글 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시인 본인도 시조 한편을 세상에 내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첫 시집을 내고 두 번째 시집을 내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는 초

안을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 꺼내어 보고 스스로 고치길 반복한다. 이미 발표한 작품도 곱씹어 보고 더 적절한 시구가 있다면 고쳐 다시 발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습관을 “글 쓰는 사람이니까”라는 한마디로 설명한다. 글에 있어서만은 완벽에 가깝고자 노력하는 시인의 확고한 마음이 느껴진다.

잊지 못할 팬레터, 시 짓는 의미 더해줘

그에게는 잊지 못할 팬이 있다. 이제껏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아 본 팬레터를 보내온 이다. 윤 시인은 그 전까지 시 짓는 일은 오로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한데 그 일 이후, 시를 짓는 일에 보람과 의미가 커졌다. 벌써 오래 전의 일

이다. 대학생이라고 밝힌 팬은 편지에 암담한 미래와 어려운 현실 앞에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던 와중에 윤성의 시인의 <꽃잎 지는 날에>를 읽고 삶의 의지를 다졌다는 것이었다.

“꽃이 진다는 건 그 꽃의 임무를 다하기 위함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고 지는 게 아니죠. 씨앗을 맺기 위해 꽃이 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아무 의미 없다면 스스로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픈 글쟁이

글을 대하는 시인의 자세에서도 느껴지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는 시의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서정

적인 풍경, 자연 현상을 빗대어 인간사를 풍조 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그의 시조를 읽는 동안은 섬세한 단어와 서정적인 풍조에 취했다가 도다 읽고 난 후,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면 눈이 번쩍 뜨이거나 무릎을 탁 치게 되곤 한다.

올해 팔순을 맞은 시인의 소망은 글 쓰는 걸 즐기며 사는 것이다. 이제와 거창한 삶의 계획 같은 게 있겠냐며 문학이나 계간지에 꾸준히 글을 싣고, '영터리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욕심이라 한다. 마지막까지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잊지 않고자 하는 윤성의 시인에게서 가르침을 얻는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그것이 어디 글 쓰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글, 사진 우현선

당진문화재단 핵심사업 - 당진시민오케스트라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합주



창단 1주년 공연에서 베토벤 교향곡 '운명' 도전! 당진문화재단이 키운 꿈 "다시 하고 싶다"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이를 먹고 철이란 것이 들었다고 해서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생계와 결혼, 육아 등으로 이어지는 '먹고 살기 바쁜 이유' 탓에 꿈은 자꾸만 후순위로 밀려난다. 한데 여기, 잊었던 혹은 미뤄두었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대부분이 대학 전공을 했거나 하고 싶었던 간절한 꿈이었다. 바로 당진문화재단 시민오케스트라(이하 시민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이야기다.

당진문화재단이 설립되고 3년 만에 당진 시내 곳곳에 시민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공고가 내걸렸다. 지금의 단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집 공고를 보고 심장이 뛰는 경험을 했다.

"다시 할 수 있을까"란 생각보다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렇게 시민오케스트라 1기 단원들은 오디션을 거쳐 '꿈'을 이뤘다. 그리고 현재, 2년차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당진시민오케스트라에는 꿈을 이룬 3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꿈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 오케스트라는 합주다.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모두가 함께 연주한다. 누구나 하나, 튀거나 튀쳐져서는 아름다운 합주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시민오케스트라는 오디션을 통해 합주가 가능한 정도의 기본 실력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단원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당진문화예술학교 공연장에 모여 연습한다.

7월의 어느 목요일, 초여름부터 폭푼지는 더위로 해가 질 무렵인데도 후덥지근함이 가시질 않는다. 저마다 어깨에 악기를 둘러 맨 단원들이 속속히 연습장으로 들어선다. 곧이어 장준근 지휘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잠시 안부를 묻거나 연습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오간다. 하나 그것도 잠시다. 이내 악보를 확인하고 악기를 조율하기 바쁘다. 장준근 지휘자의 리드로 연습이 시작된다. 일련의 과정이 뭐랄까, 결연하다. 한번 놓쳤던 꿈이어서일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잖아요. 프로와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생계를 떠나 정말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혼자 집에서 연주할 때는 몰랐던 것도 느끼게 되고요. 무엇보다 꿈을 이뤘다는 생각이 단원들을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장준근 지휘자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충남도립교향악단 지휘자 등을 역임하며 프로 연주자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 그래서인지, 아마추어인 시민오케스트라의 열정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인생 1순위가 된 오케스트라 활동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직업도 의사, 교사, 건축가,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하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음악을 사랑하고 오케스트라로 인해 삶이 행복하다는 것.

김남주(첼로, 주부) 씨는 "육아와 가사로 잊고 살던 첼로를 시민오케스트라를 통해 다시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게 됐다"며 "이제는 여름휴가며 집안 행사까지 모두 오케스트라 일정을 기준으로 정할 만큼 인생의 1순위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진영(바이올린, 의사) 씨는 "일과 병행하다보니 힘들긴 한데 혼자 배울 때보다 재미도 있고 합주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며 "특히 처음엔 형편없던 연주 실력이 연주회 무대에 올라 완성되었을 때는 굉장한 희열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상연(사회복지사, 플루트) 씨는 "나 이 먹어서 악기를 배웠는데 마침 시민오케스트라를 모집한다기에 참여하게 됐다"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주하고 무대에도 오를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문화재단 지원, 안정적 운영

시민오케스트라는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실현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 나눔을 통해 문화예술의 향유권을 확대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창단됐다. 단원들에게는 상임지휘자 선임과 연습장소, 공연 등이 지원된다. 지난 1년 간 당진시민오케스트라는 당진문화재단에서 열린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지역의 크고 작은 무대에서 나눔 공연을 가졌다.

북권병(바이올린, 교사) 약장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전국에 많은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흔치 않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곳도 많지 않

다"며 "지휘자 선임이며 연습장, 연주회 비용 마련 같은 이유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모여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데 당진 시민으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요즘 시민오케스트라는 제2회 정기연주회 준비에 한창이다. 이들은 정기연주회에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에 도전한다.

장준근 지휘자는 "창단 1주년을 맞아 아마추어지만 음악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에 도전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크다"며 "단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왜 아니겠는가. 장롱 속 깊은 곳에 간직했던 악기를 꺼내들고 오디션 장을 찾았던 그 절실함과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꿈을 되찾았던 지난 1년이란 시간의 소중함,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 벽찬 행복감이 고스란히 연주에 묻어날 테니 말이다. 다가오는 11월, 당진시민오케스트라의 무대에 올려 퍼질 '운명'을 기대해본다.



기획 **it** 수대창립4주년특별기획좌담회
당진문화재단의과거와현재,미래를말하다

미술,문학전문인력보충이최우선과제

시민참여확대등지역문화예술발전에기여
예산증대,기업메세나활성화,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개발필요



사회자 : 조재형 당진문화연대 회장
참여자 : 임재광 공주대 교수
이상옥 서양화가
김혜선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장
배 석 :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사진, 정리 : 우현선



사회 조재형 :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 동력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진문화재단이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는 재단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당진문화재단 설립 이후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말하다]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2016년도를 기준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당진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14년 이후 국비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관련 예산 역시 1억에서 3억으로 지속 증가 되었습니다. 기획공연 진행 횟수가 두 배로 성장했고 객석 점유율도 60%에서 9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의 모니터링 용역 결과 기획공연의 관객만족도도 90.28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기획공연 관객 및 수입금 등 역시 2014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해

문화향유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단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 문화예술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했는데요. 문화재단 산하 시민오케스트라, 문화동아리주간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문화동아리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소의 장르를 지원하는 사업이 특색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당진문학 40년사>, <한권으로 읽는 당진문화유산> 출간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당진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세부 사업

에도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선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장 : 평범한 당진시민으로서 느낄 때, 당진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 당진문화의전당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당진 문화예술분야에 문이 열렸다고 할까요.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조재형 당진문화연대 회장 : 사실 당진문화연대 내에서는 당진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기존의 문화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경영의 투명성이나 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해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막상 재단이 설립되고 보니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시민, 지역예술가들과 밀착되어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당진문화

재단이 설립 당시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임재광 공주대 교수 : 전국적으로 볼 때 문화재단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당진문화연대가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 우려했던 사안은 이미 이전부터 타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역의 문화재단을 둘러싼 문제는 기존의 예술인단체나 문화원 등과 충돌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기존의 기관, 단체들이 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사업이 중복될까 걱정하는 것

있죠.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문화재단은 공무원처럼 체계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의 문화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로 형성된 집단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충남을 놓고 볼 때, 시세에 따라 천안, 아산, 당진 순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어요. 문화재단이 설립된 도시와 없는 도시는 천지차이죠.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을 통해 문화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당진과 비슷한 규모의 공주, 서산 등의 시와 비교해 볼 때, 당진문화

“재단설립 후, 국비 공모사업 3배, 기획공연 횟수 2배 증가, 관객만족도 90점 이상”
“설립 초창기 우려 딛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평가”
“문화재단 장점은...중앙부처 국비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 체계적 행정, 전문가 집단”

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지금도 갈등을 겪는 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많습니 다. 반면에 지역에서 전문기관없이 시의 행정만으로 일을 하다보면 전문성도 결여되고 불공정성이 불거져 결국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설립되는 문화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가 때마다 바뀌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재단의 설립 이후 변화는 크다고 볼 수 있죠.
이상옥 서양화가 : 솔직히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작가로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어요. 저말고도 지역의 동료 작가 대다수가 개인전을 열려면 전시장 대여부터 작품 전시, 도록 제작 등을 작가가 직접 해야하죠. 현대 '올해의 작가전'을 통해 문화재단이 고용한 큐레이터가 전시의 모든 부분을 전문



김혜선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장



임재광 공주대 교수



이상옥 서양화가



조재형 당진문화재단 회장

적으로 진행해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새삼 진짜 작가된 느낌까지 받았어요. 문화재단이 지역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작가들을 발굴해 빛을 보게 해준 거죠. 이런 제 생각은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거예요.

김혜선 : 사실 당진문화예술학교는 첫 해에는 시민들이 잘 몰랐어요. 홍보도 잘 되지 않았고 운영도 부실했죠. 당진문화재단이 경영을 맡고 난 뒤,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니 자연스럽게 시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 어린이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곳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도 늘어났죠.

[현재를 말한다]

임재광 : 당진문화재단의 경우 직접 운영하는 지역 축제가 없죠? 천안은 흥타령축제, 아산은 이순신축제를 중심으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당진은 지역 축제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전 이러한 점이 기존의 문화 기관 단체들과 같음을 빗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이 기존의 것을 나눠 갖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은 많이 만들어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한 거죠.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기관 단체마다)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사업 운영권을 침해할 때,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권을 놓고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 가보면 시민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당진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당진문화재단은 실질적인 결재권자가 문화 전문가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 처장은 우리나라에 문화재단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참여한 '원년 멤버' 아닙니까.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도 결재권자가 전문성이 없어 이해하지 못하면 일이 되질 않거든요. 또 처장이 외부 인사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지역의 인맥이나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죠.

조재형 : 당진문화예술학교 설립 초창기에 경영권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되었었죠.

하지만 지역 사회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공동위탁을 실시했고 현재 당진문화재단이 단독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론과 소통을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옥 : 예술인들은 다양한 정부사업이나 공모전 등에 활용할 아이디어가 많아도 행정적인 실무에 약하다보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당진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다양한 문화사업과 관련해 전문적인 코칭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부러워하는 점이지.

임재광 : 재단마다 구성원들의 전공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무처장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죠. 당진문화재단도 공연, 음악 분야 전공자들이 많은 편이죠. 아마 공연장인 문예의전당을 운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4년 간의 사업을 놓고 보아도 자연히 공연, 음악 분야에서 우수한 기획이 많아요. 반면에 시각예술분야는 그에 비해 부족하죠. '올해의 작가전' 같은 좋은 전시가 있었지만 이 밖에 기획 전시는 많지 않았어요. 재단 내에 전문가가 없으니 기획력도 떨어지는 거죠. 큐레이터도 한 시적으로 고용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지닌 직원이 상주한다면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미술과 관련해서 당진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분야별로 전문 인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김혜선 : 저도 당진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실적 자료를 보면서 공연 분야에는 관객들의 만족도도 높고 기획공연도 많은게 다른 분야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평생시 당진문화재단의 전시실을 찾았을 때, 전시에 대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도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작가들은 흔

히 작품을 느끼는 그대로 즐기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해설을 듣고 싶거든요. 미술 감상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서 당진 시민들의 문화 수준도 높아질 수 있는 전시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조재형 : 전시실을 미술관으로 변경하고 큐레이터를 고용하는 등 시각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더 살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당진문화재단의 현 운영 상황, 문화예산에 비중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당진시 문화예술정책과 당진문화재단의 운영지원은 적정인지, 문화 예산 비중은 적정인지, 주요사업과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임재광 : 여전히 예산은 적지요. 예산을 확

가 많아져 좋죠. 문제는 운영의 내실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는 지역 축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편에서는 문화재단이 너무 비대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는데 제대로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운영한다면 재단의 역할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요.

김혜선 : 기업체와의 메세나(커피दा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수용 : 아직까지 실적은 소소한 편입니다. 앞으로 기업 메세나 등 대외협력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임재광 : 런던의 경우 기업메세나 사업이

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당진문화재단도 이와 같은 기업 메세나 사업을 기획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재형 : 재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도 예산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공연분야에 비해 미술과 문학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막연히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3대 분야를 놓고 볼 때, 문학이나 미술을 전공한 담당 직원이 있다면 국비 공모사업이나 메세나 사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여요. 물론 문예의전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연, 음악의 비중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시각예술 분야 기획력 상대적 부족...전문 인력 배치 필요”

“기업과 함께하는 노력 필요”

“문학·예술 분야에 전문인력 확보해야”

충해야 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데 말이죠. 당진이 외부에서 어떤 이미지인가를 생각하면 당진시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해답은 문화에서 찾아야 하거든요. 공장지대, 대기오염 등으로 당진시가 상징되어서는 도시의 미래가 없지 않겠어요? 문화예술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죠. 산업의 발전을 통해 얻은 것을 예술문화 분야에 투자해야죠. 당진시 문화예산, 당진문화재단의 예산 확대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재형 :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는데 비해 재단의 예산은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거죠. 문화예술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의원, 행정가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단의 노력도 이뤄져야겠죠.

또 당진에는 다양한 축제가 참 많습니다. 축제가 많으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

활성화되어 있어요. 기업이 예술 작품을 구입할 경우 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재단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죠. 기존의 사업만으로 예산을 늘리기는 어려우니까요.

김혜선 : 당진에는 크고 작은 기업이 많아요. 기업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메세나 사업에 대한 기획을 통해 예산도 확보하고 기업현장에서 문화 예술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쉬는 시간에 음악 공연이나 미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있던데, 이를 메세나 사업과 연계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상옥 : 당진미술협회에서도 얼마전부터 당진화력발전소와 메세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발전소 홍보관에 회원

그럼 이제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하는데요.

김혜선 : 문화재단이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문화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을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임재광 : 개별 사업에 대해 평가하자면 우선 올해의 작가전과 같은 사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발표의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 작가에게 이토록 체계적인 전시를 열어주는 곳은 충남은 물론이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고 이응노 화백을 두고 홍성 과 서산이 소송까지 벌였던 이야기인데요. 작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싸우지 말고, 살아있을 때 투자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작가들에게 투자해서 성장을 돕고 세계적인 작가 된다면 당진에 얼마나 많은 이가 찾아오겠어요. ▶6면에 계속



예산과 관련한 문제이긴 하나, 예술 학교를 더 활성화하려면 지역 전업 작가들도 들을 수 있도록 수준 있는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재광 : 저도 최근에 젊은 작가의 새로운 노하우를 배우러 서울로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죠. 전업 작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좌 개설이 분명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강좌명이나 프로그램이 옛날 방식인 것도 문제예요. 강좌 명칭이나 내용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혜선 : 강사진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학교 방과 후 교사들도 1년에 한번씩 강의를 듣거든요.

임재광 :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강사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죠.

조재형 :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지역의 작가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는다면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강사 초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의 작가들도 내가 전문가인데 왜 강의를 듣냐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요.

임재광 : 당진문화예술학교는 강사의 퀄리티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네요.

조재형 : 제가 과주에서 출판사를 운영 중인데요. 당진에는 출판사가 없어요. 출판사를 당진으로 이전하려 했더니 모두 반대하는 거예요. 당진 주소가 찍힌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지역 작가로 본다는 편견 때문이더군요. 서울, 대도시와 지역의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당진문화재단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이 당진문화재단 발전을 위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재단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남은 과제 같아요. 대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과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모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재단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강좌도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 역시 감사료 즉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 해줬으면”
 “당진문화예술학교 강좌 개발, 강사진 역량강화교육도 필요”
 “〈올해의 문학인〉, 〈올해의 작가전〉 등 의미있는 사업, 작가들의 중앙 진출 연구도 필요”

[미래를 말한다]

조재형 : 최근에 왜곡마을 상징 조형물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 이 문제가 결국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문학인이나 올해의 작가전도 문화재단에 상주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등단을 했어도 책을 낼 여력이나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역 시민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죠. 만약에 재단 내에 문학 전문 직원이 있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이상욱 : 목포시에서는 인사동에 목포 출신 작가들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지역 작가들의 중앙 진출을 돕고 있어요. 당진에서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재광 : 광주에서도 베이징에 레지던스

를 보내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전북도 서울 인사동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지역 출신 작가들을 위한 지속적인 전시회를 열고 있고요. 목포시나 부산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역 작가들을 어떻게 중앙무대와 연결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죠. 이처럼 창작 지원과 더불어 작가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요. 그러자면 역시 재단 내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조재형 : 지금까지 의견을 정리하자면 올해의 작가전을 비롯해 당진문화재단의 여러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높지만 미술, 문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부 사업 중 지속성을 잃고 중단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점검을 통해 대안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당진작한책장터〉나 〈당진시민한책읽기운동〉의 경우 사업 시행 이후 독서동아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지부진해졌어요. 돌이켜보면 이 역시 문학 분야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 예산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김혜선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인데요. 전문가와 시민, 재단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 포럼 뿐 아니라 소견담회 등을 통해 재단의 사업과 관련해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아진다면 더 발전적인 문화재단이 되겠죠.

임재광 : 같은 이야기인데요. 올해의 작가전의 경우,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업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초반부에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도슨트의 필요성 등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결국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조재형 : 맞습니다. 상주하는 큐레이터, 출판 문학 전문가 고용 하나만으로 작가와 시민이 모두 만족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임재광 :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하자면, 문학, 미술 분야에 있어 재단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같아요. 그래야 정부 공모 사업도 가져올 수 있고 개별 사업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겠죠. 예산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메세나 사업을 개발하고 재단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계속 개발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러자면 다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전문 인력이란 문화 행정력을 갖춘 전문 인력 이겠죠.

조재형 :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잘 정리해주셨네요. 그동안은 당진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묻거나 협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역시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현재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재단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강좌도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 역시 감사료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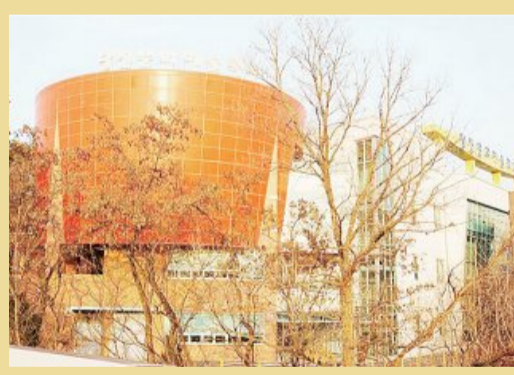
■ 당진문화재단 다양한 사업



기획공연



기획전시



당진문화예술학교



문화가 있는날 특별공연



시민예술활동지원



예술인창작지원



예술전문인력육성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이달(6월)의 문예회관으로 선정

예술인 칼럼

윈스터 조각프로젝트



구현숙
설치미술가

전 세계 미술계를 흥분시키는 2017년 그랜드아트투어의 여정이 시작됐다. 유럽의 아테네, 베니스, 카셀, 윈스터, 바젤에서 열린 비엔날레와 도큐멘타, 조각프로젝트, 아트페어 등 그 상차림도 다양하다.

유서깊은 인문학의 도시 독일 윈스터에서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조각 프로젝트(Skulptur Projekte Munster)는 공공미술 분야이며, 1977년 출범 40년 넘게 카스퍼 페니히가 총괄기획한 것이다. 세계 공공미술의 흐름을 주도한 윈스터 조각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대회는 6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학도시 윈스터도시 곳곳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윈스터의 역사, 이야기, 사람, 상황 등을 잘 담아내고 있다. 카스퍼 페니히는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양현미술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또한 윈스터

조각프로젝트가 서울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나,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 등 국내 공공미술프로젝트의 롤모델이자 중요한 레퍼런스였다는 점이다. 이번 유럽 "그랜드아트투어"의 메인 메뉴중 하나였던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화이트 큐브 안에서만 유효한 매우 한정적이고 편협한 모더니즘적 미적 의미를 공공미술은 어떻게 넓혔을까, 미술관을 뛰어넘어 어떻게 소통하고 타체도화했고, 일상의 맥락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와 탐구를 전지식 없이 단순히 몸으로 느끼게하며 오롯이 "site"의 숨은 맥락을 그곳에서 드러내는

과정으로서의 미술이 '발견' 되는 지점을 말한다. 뒤이어 작품이 놓인 공간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따른다. 또한 윈스터 조각프로젝트는 도시를 꾸미는 장식프로젝트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작가가 이른바 점령군으로서, 도시의 어떠한 맥락도 파악하지 못한채 자신의 예술적 욕구를 펼쳐놓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참여자가 전 도시를 빈 캔버스 삼는다면 한번 벌이고 마는 1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윈스터 조각프로젝트는 이미 40년을 이어

왔고 그 스스로가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올해 윈스터 조각프로젝트에 미술계의 다양한 기대감이 엮혔던 것은 우리의 일상 속 시아에도 공공 미술 현상이 쉽게 잡힐 정도로 그 개념이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오픈한 '서울로 7017'에 설치된 '슈스트리'가 큰 논란을 일으키며 공공미술에 대한 논쟁이 일반인 사이에도 흘러들어가 각종 대중매체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도 감론을박이 오고 갔고, 공공미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들의 문제점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았다. 인구 30만 중 5만 5000명이 학생이라는 윈스터는 "자전거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도시 곳곳을 자전거로 찾아다니며 접하는 작품들은 윈스터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오롯이 넘치게 담아내고 있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새롭게 설치된 작품과 기설치된 작품을 비교하며 엄정한 화이트 큐브를 벗어난 미술의 담론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극,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문화 칼럼



문영미
문화예술창작소 내송 대표

1993년 당진여고를 졸업하고 연극 좀 해보겠다고 인천으로 올라가 십여 년의 연극생활을 하고 2009년 다시 당진에 내려와 처음 시작한 것

이 〈연극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홍보였다. 인천에서 했던 관련 자료들과 필자의 이력을 홍보 자료로 만들어 당진, 서산 각 관공서에 돌렸다. 그 결과 2010년 당진여성의 전당에서 주관했던 배달강좌 시범사업에서 〈연극놀이〉 수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6년 후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해 작년 11월 〈문화예술창작소 내송〉을 설립하게 되었다. 연극도 마찬가지로 당시 당진에서 연극을 할 수 없었던 터라 굳이 인천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는지. 현재 필자가 알고 있는 당진 지역 출신이 만든 연극단체는 극단 예담(대표 김주희), 당진청소년·청년 극단 예능(대표 최순호)이 있고, 그 외에 (사)한국연극협회 당진지부(지부장 류희만), 극단 당진(대표 류희만) 등 5곳에 이른다. 이렇

듯 오늘의 당진은 충남 서해권역 대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문자 그대로 문화(culture)+예술(arts)+교육(education)의 합성어이다. 문화가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 예술품의 요소 따위와 관계된 일체의 생활양식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라면, 예술은 어떤 재주나 능력이 탁월하여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 경지에 이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

을 갖도록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더한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이라는 예술과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한가? 문화예술교육은 일차적으로 언어, 소리, 이미지, 몸과 같은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감각과 감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연극적인 요소인 다양한 역할, 상황, 감정들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상상한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중심의 교육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풍부하게 만들고 거기에 창의성, 감수성, 상상력, 사회성을 기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연극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은 학습이 아니라 다양한 직간접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극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안내하고 경험하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해석하고 분석하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나에게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고 소통하는 직관과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누군가의 지식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을 교육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안내자이며 그 판을 이끌어 가는 이끔이, 즉 길 안내자일 뿐인 것이다. 필자 역시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극아 놀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필자는 하나의 미션만 던져 줄 뿐이다. 모든 과정은 수강생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여 변형에 변형을 거듭하여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 그 안에서 스스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기에 전반적인 수업은 수강생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은 4차 혁명시대에 맞는 교육방향이기도 하다. 끝으로 문화예술교육자로서 생각하는 당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예술주체와 맞물려 다양한 계층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함으로써 당진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핵심인 문화콘텐츠로서의 음악 저작권

문화가 산책



김광철
세한대학교한류문화콘텐츠대학 실용음악학부학부장

최근에 주변에서나 방송뉴스 등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키워드를 꼽자면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면 인공지능과 드론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와 함께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융합콘텐츠와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새롭게 열어나가고 있

는 21세기에 중요한 화두의 한 축에 있는 문화예술분야는 창의력과 기술의 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생존 경쟁 또한 그리 쉽지 않은 것은 같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분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분야는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LP 시대에서 CD 시대로, 현재는 음원 시대로 또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 삶의 총체라고 하는 문화는 21세기에 들어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확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 삶의 전체문화가 콘텐츠(contents) 중심의 사고로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정된 형태보다는 가변적인 내용물로서 중요해지고 있고 있다. 특히 미디어와 문화예술이 융합(Convergence)된 결과물인 문화콘텐츠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6개의 첨단 산업 기술로는 첫째, 정보기술(IT, Infor-

mation Technology), 둘째, 생명공학 기술(BT, Biology Technology), 셋째,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넷째, 환경공학기술(ET, Environment Technology), 다섯째,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여섯째, 문화콘텐츠기술(CT, Culture Technology)를 일컬어 6T라 하여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21세기에 들어와 문화예술복지 분야가 중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콘텐츠라는 합성어가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란 다수가 향유하는 것으로서 향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이 문화콘텐츠를 떠올리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 오락적인 엔터테인먼트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는 연유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장 창의적인 분야인 문화콘텐츠의 기본 원천을 따라가면 결국 인문학적 사고와 축적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문화콘텐츠(CT, Culture

Technology)는 기술적 환경을 중요시하는 용어로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콘텐츠웨어(contentware), 아트웨어(artware)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담기는 내용물을 표현함에 있어 형식에 치중하면 디지털콘텐츠라고 할 수 있고, 내용을 위주로 하면 문화콘텐츠 그리고 내용에 있어 창작물과 방향성을 염두에 두면 인문콘텐츠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술을 CT라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영화, 음반, 출판, 영상, 게임 등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를 창조산업으로 분류하여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모든 산업 활동으로 정의하며 광고, 건축설계, 미술품, 수공예, 디자인, 영화, 게임용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음반, 출판, 방송 등이 포함되고 있

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최근에는 저작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음악저작권으로 콘텐츠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분쟁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국가 간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음악저작권에 관련하여 필자가 경험한 예를 하나 소개하면, 몇 년 전에 미국 LA에 있는 모 대학에 잠시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필자에게 큰 인상을 남겨주었다. 우리가 방문한 대학에서 강의 시간에 초청이 되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담당교수가 친절하게도 강의 참여자 모두에게 수업에 필요한 악보를 나눠주었다. 그런데 받고 보니 중간 페이지까지만 악보가 있고, 뒷부분이 나머지는 없는 것이었다. 차마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악보를 부족하게 나눠준 것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악보도 주었으면 한다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더니, 담당 교수님께서서는 정색을 하며 이렇

게 말씀하셨다. 저작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완전한 악보 전체를 복사해 주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필자 또한 대학에서 저작권을 10여년 넘게 강의하면서도 부끄럽게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이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교육목적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카피가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예술콘텐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음악저작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활동에서의 악보 카피 그리고 아마추어예술단체 심지어 프로 예술단체에서조차도 카피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작자들의 고통의 산물이라고 하는 저작물이 잘 보호되었을 때, 문화콘텐츠로서 음악콘텐츠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창작자들의 경제적 보상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저작권의 중요성 또한 더욱 부각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무대기술팀 이동원 조명감독**

“조명은 무대라는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

‘빛’으로 그리는 ‘무대 밖’ 인생

무대는 주인공과 등장인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등장인물들이 부각되도록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재단의 무대기술팀이다. 이동원 조명감독(48)을 만나 무대뒤 인생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조명과 인연을 맺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26살 때 배운 메이크업이다. 당시 메이크업아티스트가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료 후 7개월 정도는 관련 일을 했다. 이후 특수분장으로 전환했다. 주로 연극과 거리행사 배우들의 특수 분장을 맡았다. 그러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뮤지컬 42번가>에서 무대크루(전환수)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그가 조명의 세계에 다가간 첫 경험이기도 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시작해 ‘조명’에 빠지다

일을 하면 할수록 조명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1997년부터는 아예 현장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경력을 쌓은 뒤 서울교육문화회관과 대전예술의전당 조명감독(조장기 개관멤버), 중앙극립박물관 극장용 조명감독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재 당진문화의전당에선 6년째 일하고 있다.

“예전엔 이런 분야는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고 상관없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우연히 시작한 메이크업일이 조명까지 연결된 거죠. 어렸을 때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조명일은 보통 20살 전후에 시작하는데 27살에 시작했으니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언제 먹고 살래’하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욱 성실히 배웠습니다.”

조명감독으로 일하는 틈틈이 한국방송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에서 부족한 공부를 채웠다. 방송 관련된 일과 PD의 역할, 조명 등 이론을 공부했다. 당시 연



극동아리 활동 때는 조명을 맡아 멋진 무대를 만들어냈다.

“조명은 무대라는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

그는 무대를 도화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대라는 도화지에 조명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다. 화가는 도화지에 그리지만 조명감독은 무대에 그림을 그린다. 까만 무대에 조명이라는 다양한 칼라를 이용해 신(장면)을 만든다. 그래서 무척 매력 있다는 것이다.

“뒤, 정면,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 배우의 감정표현을 할 수 있어요. 밤신, 낮신, 새벽신, 배우상태가 감정이 격하나, 기쁘냐의 감정을 조명으로 표현을 할 수 있

습니다. 극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줘요. 연극, 뮤지컬, 무용에 조명이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큼니다. 빛으로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조명으로 무대를 디자인 합니다.”

그는 무대디자인을 위해 배우와 같이 대본을 읽고 역할을 파악한다. 현대극, 과거극 등 장르에 따라 조명의 역할이 다르기에 적합한 신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무용은 조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무용은 오로지 몸짓으로 표현하다보니 조명은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가 “무용공연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말하는 이유다.

“연극 <미스닥터>라는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대학로에서 시작한 입봉작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200여 편 이상정도 무대디자인을 한 거 같아요. 연극은 대본을 보며 파악하고, 무용은 안무가와 대화해 어떤 의미의 작품인지 주제와 콘셉트를 파악합니다. 머릿속에 장면으로 그려요. 리허설을 통해 수정하고, 동선이 나 동작 등 표현이 바뀔 수 있어 바로 보완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허설이 꼭 필요해요.”

“무용 공연이 가장 신경 쓰이는 이유 아세요?”... 입봉작은 연극 <미스닥터>

물론 힘들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성

취감이 그만큼 크다. 이 감독은 그 성취감을 “해본사람만 알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 재미 때문에 조명일을 못 벗어난다고도 했다.

“20년 전만 해도 조명 일을 통해 먹고 산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당시 조명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금전적인걸 떠나 조명이 그냥 좋아서 했어요. 정말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23일 잠도 안자고 욕도 먹고,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웠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프리랜서로 생활했을 땐 일 년 중 7~8개월은 지방에서 생활했다. 지역공연장 웬만한 곳은 다 다 보았다. 직접 한 것도 있고 도와준 것도 있는데 그때 경험이 지금 극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단다.

이 감독은 충남은 문화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평했다.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부족하고, 전문공연시스템을 갖춘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란단다. 지금은 일부 생겼으나 타 지역에 비해 충남지역이 많이 빈약하다고 했다.

“요즘은 첨단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3~4개월 주기로 바뀌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몇 년 주기였거든요. 무대조명은 옛날 아날로그 조명이 좋아요. 표현할 때 따뜻한 느낌이 있어 표현력이 높아집니다. 첨단화되면서 그런 맛이 좀 떨어진 면이 있어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일이 빛을 잡아내는 아날로그방식의 느낌을 못 따라갑니다. 물

론 소적인거를 표현할 때는 현재방식이 필요해요. 유지관리비가 더 들고, 가격도 높고 부품교체시 비용이 곱절이 드는 등 관리비용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어요.”

“우리 무대기술팀,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아요!”

‘일상의 반복이 지겹지 않냐는 필자의 질문에 ‘조명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매일 공연마다 다르고 같은 공연을 하루에 2번씩 해도 공연 할 때마다 변하기에 지겹지 않단다. 그러면서도 일은 하면 할수록 부담이 크단다.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우리 재단의 무대기술팀에 대한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고, 작품에 참여할 스태프 충분히 구성돼 있어요.”

그의 바람은 작품에 직접 참여해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열정이 남아 있어 미련이 있다고 했다. 은퇴 후에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고 싶단다. 무대라는 공간을 빛으로 그리던 그가 도화지에 그릴 그림이 궁금해진다.



만나고 싶습니다 | 문화회원 윤현옥씨

“좋은 공연 많아 당진으로 이사 오고 싶을 정도”



(왼쪽부터) 이형순, 이순남, 이순옥, 윤현옥

“인근지역중문화수준가장높은도시 ‘당진’ 당진문화회원예매율 1위는 서산사람

서산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윤현옥 씨는 한 달에 4~5번씩 당진을 찾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공연 관람’이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당진문화재단 문화회원 중 예매율이 가장 높은 회원이 바로 윤현옥 씨다. 당진에서 열리는 공연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서산 사람이라니. 뜻밖이라는 반응에

오히려 답답한 건 윤 씨다. “서산 사람들 당진으로 공연 보러 많이 와요. 물론 서산에도 공연장이 있죠. 그런데 공연장 규모도 작고 공연 횟수도 많지 않아요. 그렇다보니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4년 전부터인가, 당진에 공연이 눈에 띄게 늘어나더라고요. 한 번 와봤더니 공연장도 크고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공연 작품 수준이 높고 다양해요.” 윤 씨는 서산에서 공연 안내 봉사도 했었다. 공연 예매표를 구하기 어려우니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봉사자로 나선 것이다. 한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오래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당진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고, 4년째 당진문화재단 문화회원으로 가입해 매주 당진을 찾고 있다. “주말에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퇴근하고 공연을 보러 와요. 서산은 물론이

고 태안이나 내포도 좋은 공연이 있으면 찾아다녀요. 그런데 당진이 인근 도시 중에서는 공연 문화 수준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당진문예의전당을 제일 열심히 다니죠.” 윤현옥 씨는 주로 지인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다. 지난 7월 1일 열린 송대관 vs 태진아 ‘Hello 당진’도 가깝게 지내는 언니들과 함께 즐겼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빴죠. 우리 세대에는 누구나 그랬잖아요. 직장 다니며 돈 벌고 아이들 키우느라 취미생활

같은 건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서 여러모로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많아졌어요. 영화부터 보러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는 클래식이나 오페라, 연극 같은 공연까지 장르불문하고 즐기게 됐어요. 함께 공연을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 즐거움도 배가 되고요.”

윤 씨는 수시로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함께 갈 사람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이 확정되면 표를 예매하는 것도 주로 윤 씨의 몫이다. 공연 날이면 함께 약속장소에서 만나 한 대의 차량으로 당진에 와서 공연을 본 뒤, 식사를 함께 하며 공연 감상평도 나눈다.

함께 공연장을 찾은 이순남 씨는 “일주일 동안 틀어 박힌 생활을 하다가 공연장에 와서 스트레스도 해소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형순 씨 역시 “서산에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좋은 공연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며 “지인들과 어울려 다니니 오가는 길도 즐겁다”고 말했다.

윤현옥 씨는 “책 한권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공연을 관람 한다”며 “처음엔 부담스럽던 클래식 공연도 자주 듣다보니 익숙해져서 이제는 여유롭게 즐기게 된다”고 말했다.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때면 당진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는 생각마저 든다는 윤 씨. “참, 해외 예술가 초청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해설을 함께 해주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그녀는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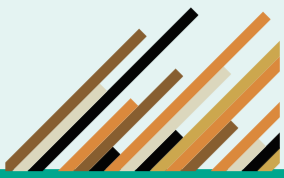


당진의 문화·예술행사 일정



사업일자	시간	사업명	단체명	장소	비고
9월1일~8일		제37회학동인전	학동인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실	
9월1일~30일		2017행복한동행 (목의향연) 전	상록목향회	다원갤러리	
9월1일~10월30일		제14회문인화연구회전	당진문인화연구회	상록문화제 행사장	
9월1일~10월30일		제8회문인화회화대회	당진문인화연구회	상록문화제 행사장	
9월1일	19:30	금요음악회	(사)한국생활음악협회당진지부	당진문예의전당 야외무대	5~9월매주금요일 (15~20회)
9월2일	18:30	지역주민과함께하는제10회‘소들기울콘서트’	S.P.R음악동호회	합덕소들공원야외음악당	
9월4일	19:00	제3회당진시가족·동료중창대회개최	온누리합창단	당진시당진중앙2로 28, 3층 (온누리합창단 연습실)	
9월8일	19:30	금요음악회	(사)한국생활음악협회당진지부	당진문예의전당 야외무대	5~9월매주금요일 (15~20회)
9월8일~15일		아름다운 동행전 (장애인과함께하는)	당진구상작가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9월9일		제7회심훈콩쿠르	(사)한국음악협회당진지부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소공연장	
9월10일		제10회보덕사 호수음악제	보덕사관음합창단	보덕사 야외무대	
9월10일		사랑의향기가득한시상송회	한국시상송가협회당진지회	당진1동주민자치센터외당진시 일원	매월둘째주 일요일
9월15일	19:30	금요음악회	(사)한국생활음악협회당진지부	당진문예의전당 야외무대	5~9월매주금요일 (15~20회)
9월21~24일		2017년 전국당진기발미술제	(사)한국미술협회당진지부	당진함상공원 일원	
9월22일~24일		제2회스마트폰 사진공모전	당진사진동우회	당진시청 앞광장	
9월30일		한사랑음악회(연간12회)	당진한사랑음악적십자봉사회	삼교호관광지내 야외공연장 외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일정 및 장소는 주최 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당진 마을 여행 1 - 상록수마을, 송악읍 부곡리

부곡리 고삿을 타고 전해지는 <상록수> 이야기



필경사

당진은 <상록수>의 고장이다. 당진시민에게 심훈과 <상록수>는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당진의 대표 축제, 상록문화제로 더욱 친숙하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송악읍 부곡리는 어떤 마을일까. 소설 속 주인공 박동혁의 실존 인물이 살았고,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생을 이어가고 있는 곳. 마을 앞 바다는 육지가 되어 대규모 산업공단이 들어섰지만, 작가가 <상록수>를 집필했던 집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곳, 송악읍 부곡리. 작가는 세상을 떠나도 그의 글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이야기가 계속 되듯, 마을도 세월에 따라 모습이 변하고 그 안에 동지를 들고 사는 이들은 바뀌었지만 마을 고삿을 타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80년전소설속배경 그대로 남아 있는 마을 심재영 고택, 상록수교회, 필경사와 심훈기념관 그리고 한진포구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상록수>의 역사

8월 중순, 부곡리 마을 입구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다. 마을 길 양 옆으로 자리 잡은 포도밭을 지

나면 상록수 교회와 상록초등학교로 향하는 갈래 길이 나온다. 상록초등학교는 <상록수>가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공모전에 당선되어 받은 상금으로 세운 상록학원이 모태가 되었다. 상록수 교회 역시, 심훈

일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필경사에서 시작된 첫 예배가 2001년 지금의 자리에 신축된 상록수 교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교회 맞은편에 자리한 고택도 <상록수>와 떼어 수 없는 곳이다. 하늘을

덮은 소나무 밑 끝에 자리한 고택은 심재영 선생의 집이자 심훈 선생이 당진에 내려와 필경사를 짓기 전까지 여러 작품을 집필하며 머물렀던 곳이다. 고 심재영 선생은 심훈 선생의 장조카이자 <상록수>의 남자 주

인공 박동혁의 실제 모델이었다. 그는 부곡리에서 야학당과 공동경작회를 주도한 농촌 계몽 운동의 선구자였다. 심훈 선생은 경기도 반월면 샘골(지금의 안산시)에서 농촌계몽 운동을 하다 요절한 최용신과 부곡리의 심재영을 중심으로 한 공동경작회 이야기를 연결해 <상록수>를 완성했다. 지금도 마을을 지키며 사는 어르신 중에는 공동경작회를 기억하는 분이 계신다. 세월이 더러 기억의 일부가 바라거나 전달 과정에서 모양이 변할 수는 있어도 이야기



1.2.3 심재영 고택 풍경 4 한진포구



- 1. 5.7 늦여름 포도가 익어가는 부곡리 풍경
- 2. 심훈의 집, 필경사 문패
- 3. 4 심훈기념관
- 4. 상록초등학교
- 6. 상록초등학교
- 8. 필경사 옆 심훈 선생의 묘
- 9. 심훈기념관에서 바라본 한진



는 그곳에서 오래도록 남아 고스란히 역사가 된다.

심훈의 집, 필경사 문패에 얽힌 추억

심재영 고택을 나와 마을길을 따라 걷는다. 갖가지 농작물을 심은 황토밭과 나라이 여무는 푸른 논이 이어진다. 부곡리에서는 초여름마다 황토감자축제가 열린다. 한진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자란 송악 황토감자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밭과 논 사이에 농가가 드문드문 모여 앉은 모습이 전형적인 농촌 마을 풍경이다. 그곳에 필경사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에 심훈기념관이 건립되면서 주변을 정돈해 정갈한 모습이다. 필경사는 심훈 선생이 1932년 아버지가 살던 부곡리에 내려와 작품 활동을 하면서 1934년 직접 설계하고 손수 지은 집이다. 이곳에서 <상록수>를 비롯한 그의 대표 작품들이 태어났다.

황토를 바른 초가집인 필경사 앞에서 먼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까맣게 칠한 나무판에 정갈하게 '필경사'라 새긴 문패다. 심훈 선생의 삼남 심재호 씨가 6년 전 당진을 찾았을 때 걸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직접 필경사라 이름 짓고 나무에 새겨 걸어둔 걸 어릴 적 내가 가져다 자치기를 하며 놀다 없앴다"고 말했다. 문패를 디는 일은 심재호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한 일이었다. 당시 그는 평생을 이고 지고 살아온 아버지 심훈의 육필원고를 비롯한 유품을 당진시에 전달하기 위해 고향을 찾았었다.

심훈기념관에서 바라본 한진 앞바다

심재호 씨가 기증한 심훈 선생의 유품은 2014년 심훈기념관이 새롭게 개관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훈기념관은 필경사 옆에 자리하고 있다. 전시실로 내려가기 전, 심훈 선생의 동상이 세워진 옥상 공원에 올랐다. 문득, 여전히 공동경작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이곳 옥상 공원에서 모임이 이뤄졌겠구나 싶었다. 부곡리를 등지고 한진 바다를 향해 섰다. 이제는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 바다가 멀어졌지만, 심훈 선생이 살았을 당시에는 코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이다.

'서낙 하늘로부터는 비를 머금은 구름이 물러들어온다. 그 검은 구름

장은 시름없이 떨어뜨린 내 머리 위를 덮어 누르려 한다. 배는 아산만 한 가운데에 떠있는 「가치내」 라는 조그만 섬에 와 닿았다. 멀리서 보면 송아지가 누운 것 만한 절해의 고도다.'

심훈이 <7월의 바다>에서 묘사한 행담도 쪽을 바라다본다. 오늘도 비를 머금은 구름이 물러드는 것은 마차간지인데, 공단의 굴뚝과 바다를 가로지르고 선 서해대교는 이전에 없던 것들이다.

<조선의 영웅> 부곡리 사람들

심훈기념관은 심훈家 후손 및 관계자들이 기증, 위탁한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농촌계몽운동가이자 작가, 시인, 영화감독, 언론인으로 살아온 심훈의 삶과 상록수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곡리 마을의 이야기가 있다. 심훈 선생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공동경작회 사진이 그것이다. 공동경작회 회원들은 심훈 선생이 작고하신 이듬해에 환웃을 입고 모여 앉아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속 회원들의 얼굴을 확대해 인화한 사진첩도 함께 놓여 있다.

'심훈 선생은 그의 글 <조선의 영웅

>에서 백 명의 이론가, 천 명의 예술가보다 농촌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계몽운동을 하는 이들을 조선의 영웅으로 표현하고 있다.'

심재호 씨에 의하면 필경사는 그동안 부곡리 주민들이 지켜왔다. 초가집 필경사는 세월을 거치며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지붕이 훼손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부곡리 주민들이 씀짓 돈을 추렴해서 지붕을 갈고 마당에 잡풀을 뜯었다는 것이다. 심훈기념관 설립 당시에도 주민들이 땅을 내놓아 부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이야기는 계속 된다

승용차 한 대가 빠듯이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을 따라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음력으로 추수가 지난 8월의 여름, 곡식 익기를 기다리는 농부들이 논, 밭을 돌보고 있다. 여행객에게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부곡리의 풍경은 '평화' 그 자체다. 허나 예나 지금이나 농촌의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물가는 치솟는데 주저않은 쌀값이며 농산물 값은 오래도록 일어설 줄 모른다. 종일 심훈을 생각

하며 보낸 여행이어서일까, 마음 한 편이 쓰리다. 농사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 그것은 곧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과 같은 일 아닌가.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한진포구로 향했다. 더위가 가신 바다의 바람 덕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한진포구에서도 심훈과 <상록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상록수>에 나오는 채영신과 박동혁이 사랑을 나누며 농촌 계몽의 큰 계획을 세운 곳이 바로 한진이다. 소설에는 한진포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곳은 곧 심훈을 비롯한 부곡리 사람들이 오래도록 바다를 통해 서울로 가던 길이기도 했다. 지금이야 해안가 개발로 오롯이 바다만의 풍경은 즐길 수 없게 되었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해질 녘 바다를 물들이는 노을의 멋스러움은 여전히 아름답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한,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도 있다.

글, 사진 우현선



당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 나루문학회

당진에서 가장 역사 깊은 문학회

37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나루문학> 발간
문학탐방, 심훈골든벨, 나루문학상 등 다양한 문화 활동

나루문학회는 1980년에 발족했다. 올해로 37년의 역사다. 당진 지역에서 가장 역사 깊은 문학회다. 1980년 10월 이른바 시인을 필두로 지역의 문인들이 모여 발족했다. 이후 37년 간 회원이 늘어나고 시에 국한되었던 장르도 소설, 수필 등으로 확대되었다. 나루문학회는 초창기부터 필경사의 지방문화재 지정에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앞장서는가 하면 학생문에 백일장 대회를 열고, 상록문화재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문화회로서 지

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나루문학은 시, 소설, 수필 등을 모두 다루는 당진 유일의 종합 문예지예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회이기도 하고요.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내실 있는 문학회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요.”(송영팔 회장)
나루문학회는 매년 가을 동인지 <나루문학>을 발간하고 있다. 37년간 37집을 발행했다. 박수반을 만난 성실함이다. 회원 대다수가 생업을 갖고 있는 생활인으로 문학회 활동을 겸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나루문학회는 한 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갖고 신작을 발표하고 합평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10대 학생부터 60대 직장인까지,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다. 나루문학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연중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문학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매년 가을 발간하는 <나루문학> 출판기념회, 회원들의 작품에 그림을 곁들여 전시하는 시화전, 유명 문인



초청강연회, 문학탐방, 상록문화재 기간동안 진행되는 심훈골든벨 등이 그것이다. 특히 나루문학상을 통해 당진 내 등단하지 않은 신인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송영팔 회장은 “나루문학회가 일반인이 문학을 어렵다 생각하

지 않고 문학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원 증가에도 노력하고 있으니 문학을 사랑하는 당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원명단 △회장: 송영팔 △부회장: 김소해, 김기택 △사무국장: 한현숙 △감사: 김선순 △편집장: 이종미 △편집위원: 이인화, 김선순

당진문화동아리주간 2017 우수동아리 - 민화이야기

전통 민화를 그리는 아낙들의 이야기



동아리 급훈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전통민화 계승하며 생활 속 민화 즐기기도 힘써

“민화”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몇 있다. 까치와 호랑이를 그린 ‘호작도’, 수박과 들쥐를 그린 신사임당의 ‘초충도’ 등이 그것이다. 양반들이 즐겨 그렸던 사군자와 달리 민화는 서민층에서 유행하며 민중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격의적인 그림 민화. 그러나 우리에게 민화는 서양화나 수채화에 비해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탓일까, 민화이야기의 작품들은 올해 당진문화동아리주간 전시작품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 이숙경 강사는 “민화는 우리나라 그림이고 문화유산인데도 강사진이 많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익숙지 않다”며 “전통 민화를 계승한다는 사명감으로 창작보다는 전통 민화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당진문화원에서 이숙경 강사에게 전통 민화를 배웠던 수강생들이 ‘민화이야기’를 꾸렸다. 회원들은 여전히 당진문화원에서

이 강사에게 매주 전통 민화를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소품들을 제작하는 생활민화 작품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당진평생교육원 학습 동아리실에서 모여 자유롭게 개인 작품 활동을 하거나 민화이론 공부를 함께 한다.
안영희 회장은 “민화는 그림속 소재들이 저마다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어 알고 보면 더욱 매력있는 예술”이라며 “당진생활문화예술제를 통해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민화를 선보이고 민화에 담긴 의미를 알릴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민화이야기 회원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업이나 정기모임 시간에 집중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 여기에 분체를 이용해 그리는 민화는 배경질부터 세밀한 표현까지 오랜 시간 공을 들이기 때문에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최소 몇 개월 이상이 걸린다.
동아리 활동의 실무를 도맡고 있

는 정민화 씨는 “우리 동아리는 급훈처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오랜 시간 공들인 작품을 완성했을 때 성취감은 뭐라 설명하기 힘들만큼 벅찬 느낌”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별스러운 것 없는 일상에서 민화 그리기를 통해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동아리를 하는 즐거움 중 하나다.
안영자 회장은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취미 동아리들이 개별적으로 도록을 만들고 전시회를 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당진생활문화예술제를 통해 전시회를 열 수 있어서 회원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우수동아리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얻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명단
△강사: 이숙경 △회원: 유나경, 박정자, 안영희, 양경옥, 정병란, 김숙인, 정수진, 정민화, 양인숙, 이슬, 심윤정, 전삼화, 서미애, 윤기현

당진문화동아리주간 2017 우수동아리 - 래리티어린이응원단

상큼한 소녀들로 이뤄진 무서운 신에



초등학교 여학생 20명의 아름다운 군무, 치어리딩
운동 통해 성취감, 협동심, 배우는 즐거움까지 만끽

열 살 남짓한 소녀들의 웃음소리는 듣고만 있어도 엔드르핀이 샘솟는다. 무엇이 그리 재미나는지 연신 깔깔깔. 하지만 소란스러움도 잠시, 지도 강사의 ‘준비해져!’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울 앞에 대형을 갖춘다. 소녀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음악에 맞춰 시작되는 몸 풀기 동작과 대형을 갖춘 모습은 실로 방송에서나 봤던 프로들의 모습 그대로다. 이곳은 래리티(RARITY)어린이응원단 연습실이다.
연습실 풍경만으로도 창단한 지 2년 남짓 된 신생 동아리가 당진문화동아리주간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이유를 짐작케 한다. 사실 래리티어린이응원단은 창단 1년차 때부터 전국 각종 치어리딩 대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쥔 무서운 신에다.
2016 고양국제꽃박람회 제4회 올림픽아트 치어리딩 대회 대상, 같은해 4회 서초구협회장배 전국치어리딩대회 종합우승, 2017 제13회 당진 청소년 어울림 큰마당 최우수상. 모두 나갔다 하면 최고상을 휩

쓰는 그 어려운 일을 작은 소녀들은 해내고야 만다.
“처음에는 무대에 서면 떨렸는데 춤추는 게 재미있어요. 특히 새로운 안무를 배울 때가 가장 즐거워요.”(단장 권소정, 초4)
“동작을 배우는 게 어렵고 무대에 서면 떨리지만 공연을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김하은 초3)
“친구들이랑 함께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게 즐거워요. 대상을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부단장 정수민 초3)
소녀들은 치어리딩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과 성취감, 동료와 함께 하는 협동심을 배운다. 이들의 부모들이 치어리딩을 권한 이유도 같았다.
응원단 연습실 한 칸을 지키고 있던 학부모들은 “뒤에서 주눅거리던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고 표정도 밝아졌다”며 “스포츠 개념으로 체력도 다지고 무대에서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권남희 대표는 “알리스응원단의 특별공연을 위해 꾸린 어린이응원단이 뜻밖에도 호응이 좋아 정식으로 창단에 지금까지 다양한 축제와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무엇보다 함께 하는 아이들의 열정이 대단하고 치어리딩이 흔치 않다 보니 매력을 더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응원단은 매주 2회 연습시간을 갖고 방학 때마다 서울에서 열리는 치어리딩 캠프에 참여해 역량을 쌓고 있다.
황남규 강사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치어리딩이 낯선 운동이라 생소하지만 우리 응원단이 보여주는 액션치어리딩은 기계체조나 발레 동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남녀노소 쉽게 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대표는 “동아리주간사업은 다른 대회나 축제와 달리 지역 동아리들이 성과를 발표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아리 간의 교류를 이끌어 내고 역량강화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 의미도 더 크다”며 “해가 거듭될수록 규모도 커지고 운영도 체계적이어서 참여하는 동아리로서 뿌듯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당진문화동아리주간 생활문화예술제 : 당진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동호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 올해 4회를 맞은 생활문화예술제는 6월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4일간 당진 문화동아리들의 공연, 전시, 체험이 한자리에서 펼쳐졌고 500여 명이 넘는 동아리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축제 이전에 참여 동아리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되었다.

래리티어린이응원단 : 대표 권남희, 강사 황남규, 단원 김윤후, 권소정, 백서운, 신현지, 정예은, 전예소, 정수민, 이세은, 이지승, 김하은, 소유정, 김보미, 이소안, 이윤주, 오세연, 박지유, 김란아, 양유재, 이하은, 남소울

문화유산으로 보는 당진 - 1

매향비 (埋香碑)

〈당진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당진문화는 어디에서 시작돼 어떤 과정을 거친 걸까요? 〈당진문화재단 소식지〉가 당진문화의 뿌리를 찾아나섭니다. 그렇다고 새로 쓰는 당진문화유산사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말 당진문화재단이 발행한 『한권으로 읽는 당진문화유산』(필진 : 김추윤, 신양웅, 윤성의, 이인화, 사진 : 최영근)이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발췌·정리해 당진 문화의 정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요약 과정에서 원문의 내용을 읽기 쉽게 일부 임의 수정하였습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첫 소식은 '매향비'입니다.



신평면 문정리 매향비

매향비

매향비(埋香碑)란 향을 묻으면서 그 연유와 시기, 장소, 관련된 사람(집단)을 기록한 비문을 말한다. 매향은 향을 묻으면서 생기는 침향(枕向)을 매개로 하여 미륵부처와 연결되기를 기원하는 민중의 불교 신앙 의례이다.

우리나라에서 매향의식이 일반화된 시기는 14~15세기로, 이 시기는 고려 말과 조선초기로 변혁의 시기였다. 따라서 전환기에 처한 민중들이 현실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자 매향의식을 주도했다. 특히 내포지방처럼 왜구의 침탈이 심했던 해안 지방은 현실적 불안감을 구원받고자 미륵신앙과 결합하여 향을 묻었다. 매향비가 발견되는 곳이 대부분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미면 안국사지 배바위 매향비

당진의 매향비

〈정미면 배바위 매향비〉

정미면 수당리 안국사지 보물 100호인 삼존불상 바로 뒤편에 속칭 배바위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 미륵매향비는 바로 이 바위의 앞면에 새겨져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비라고 할 수는 없고, 바위에 새겨져 있으므로 암각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형식이 비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암각비(岩刻碑)라고 부를 수 있다. 현재는 암반이 마모가 심해 전체 비문에 대한 행적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 글자가 판독되고 있어 매향비임을 알 수 있다. 매향비는 매향의식을 행하고 이 사실을 기록한 비를 말하며, 돌을 다듬어서 세운 것도 있고, 자연석에 그대로 암각한 것도 있다.

안국사지의 지리적 위치만을 고려한다면 안국사는 분명 고려시대 여미현(餘美縣)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여미현은 조선 태종7년 해미 지역에 있던 정해현과 합쳐서 해미현이 되었다. 여미현은 본래 백제의 여촌현(餘村縣)으로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 여유현(餘邑縣)으로 이름을 고쳐 혜성군(城郡·현재의 면천)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이 여미현의 옛터는 서남향의 봉화산과 동남향의 은봉산-동암산의 동쪽편 기슭을 터전으로 하였던 고을이다. 여미현의 옛 성터는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가좌리에 걸쳐있는 동암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미리에서는 고을의 여러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려시기 안국사 창건, 혹은 번성기에 직결된 문화유적들은 역시 여미현 세력으로 추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염술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재했을 가능성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매향암각에서 '염술'의 연고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배바위에 새겨진 매향 암각문에는 그 연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또 매향 암각이 먼저 이루어지고, 뒤에 안국사의 대대적인 중창과 불사(삼존석불)가 이루어졌는지, 반대로 불사의 조성은 먼저인지 불명확하다. 대개 매향의식은 민중불교 신앙의 한 형태라고 볼 때 석불과 석탑이 조성된 이후라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안국사지 석불 가까이 있는 배바위에 새겨진 매향 암각은 삼존불을 모시던 인근의 지역민들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삼존불상 바로 뒤편에 속칭 배바위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와 관련하여서는 목공예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져 오고 있다. 전설의 내용 중 '안국산에 있는 배바위 아래 깔려있는 곡식이 마는 우리나라 온 백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곡식이 저장되었다'는 대목이 있다. 이는 매향비가 발견되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향의 결과 얻어진 침향이 귀한 보배로 주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안국사지 매향암각은 바로 이러한 전설이 깃든 배바위의 앞면에 새겨져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오년에 각선이라는 화주가 중심이 되어 향도(香徒)를 결성하고 여미현의 북쪽에 있는 천구포 동쪽에 매향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는 「余美」(여미)와 「天口浦」(천구포)라는 지명이 있어 주목된다. 여미는 여미현이며, 천구포는 현재의 천의리에 있는 천의포 포구의 옛 지명이다.

이 지역이 옛날 바다로 개답 이전에는 안국산의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곳이어서 매향의 입지조건에 적합하다. 특히 천의포 구티마을에서는 침향목이 발견됐다. 1975년 주인장이라는 목사가 앉은뱅이 향나무를 구티마을 갯가에서 발견하여 수집하였다가 현재는 최병남 목사가 장식용으로 지니고 있다고 한다.

매향 암각문의 연대는 여미현의 지명이 나오는 것을 미루어 1270년(원종 11), 1330년(충혜왕 1), 1390년(공양왕 2)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류지호 교장은 고려초기인 970년 혹은 1030년으로 추정하였고, 오윤희 교수는 연대표기에 중국의 연호를 기록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원나라 초기의 경오년인 1270년으로, 그리고 채웅석 교수는 매향 암각들이 대체로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사회혼란과 짝하여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여 경오년을 1300년 혹은 1390년의 고려 말로 추정하고 있다.

매향 암각의 연대는 고려 말로 내려잡아 경오년은 1330년이나 1390년으로, 경술년은 1310년이나 1370년 어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레야 석불입상의 조성기법, 안국사의 역사적 기능과 연결된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다.

〈신평면 돌미륵 매향비〉

신평면 문정리(신당길 255-67) 삼교천변 운정 양수장 근처에 가면 옛 백제시대의 신평현의 읍지로 추정되는 신평현성이 있고, 그 인접지 탐재마을 수로변에 미륵당이 마을이 있다. 이곳 마을 수로변 옆에 가면 정말 멋진 돌미륵

하나가 서있고, 그 옆에 작은 돌비석이 나란히 서있다.

이 돌미륵은 남근석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크기는 높이 217cm, 두께 70cm 내외로 얼굴만의 크기는 92cm이다. 상호 및 의습의 윤곽에 관해서는 상호에 약간의 윤곽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자세하지 않다. 돌미륵은 대략 조선 세종 10년(1428년) 시기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돌미륵이 남근석의 형태를 한 것과 함께 전면에 의하면 석장승 내지는 망부석이라 불리고 있어 대체로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돌미륵이 아닌가 여겨진다.

돌미륵은 자연석을 투박하게 다듬어 삼도(三道)와 옷 주름살 등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옆에서 있는 작은 돌에 새겨진 명문을 살펴보면 조선 세종 10년(1428년)에 세워진 매향비임을 틀림없으며, 신평의 토성(土姓)으로 호장(戶長)인 호길저가 주도하여 신평현내에 사는 불교 향도들을 모아 시주한 후 1428년에 매향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부락 이름도 이 미륵불이 있는 당이 있었기에 거기에서 유래하여 '미륵당'이 변하여 '미륵당'이 되었다. 옛날에는 당(堂)으로서 보호각을 세워서 매년 용날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외세의 침략이나 위협을 부처나 미륵을 통해서 물리치려는 호국불 사상은 고려시대부터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충북 중원군 상모면 미륵리에서는 현재도 커다란 미륵과 절터가 월악산 입구에 남아있다. 충남 청양읍 읍내리 미륵은 읍내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 세워졌다. 당진시 신평면 문정리 미륵은 옛 신평현성 관아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

중국으로부터 불교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상에 위치하여 주변의 서산, 태안, 예산 등지에 유명한 불교유적들이 많으며, 당진지방도 안국사지 석불, 영탑사, 신암사, 영랑사 등의 유서 깊은 사찰과 안국사지 매향비(배바위에 2군데에 걸쳐 각기 다른 매향사실 기록함) 신평 돌미륵 매향비 등 불교유적지가 많다. 특히, 매향비는 내포지방에서 2개나 가지고 있어 최다지역이다.

〈발췌·정리〉 경영지원팀 오수용

올 가을 문화재단 사업

▶ 숨은 지역문화 씨앗 찾기

충청권 문화이모작 사업, 주관기관 선정



문화이모작 - 농산어촌 문화인력 양성과정 실습 강화한 교육 통해 지역문화 기획인력 양성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마을단위 문화사업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당진에서 진행된다. 바로 2017 충청권 문화이모작 농산어촌 문화인력 양성 과정 '숨은 지역문화 씨앗 찾기'다.

2017 충청권 문화이모작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마을단위 문화사업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충청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강

의형태의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기초 과정부터 실습까지 참여자가 직접 만드는 교육으로 추진된다. 열린 교육과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지역문화 기획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다.

담당 컨설턴트가 사전 초기 기획부터 함께 참여해 사업 진행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과정 중에도 수시로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활동 모색을 위해 문화재단 사업 및 지역내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

다는 계획이다.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7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선발했고, 8월 중에 기초과정 수업을 통해 마련된 기본계획을 실행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12월까지 실습과 집중과정이 진행된다.

이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생활문화진흥원과 당진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전 과정 이수자에게 과정 수료증이 발급되며 과정 참여시 무료 숙식과 교육과정별 수시 맞춤 멘토링, 참여팀 별 실습비 차등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 통당 뮤지컬 학교

뮤지컬 발성부터 공연 실전까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인 통당 뮤지컬 학교 3기 교육이 오는 9월 중에 당진문화예술학교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진행된다.

통당 뮤지컬 학교는 기능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아우르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며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 초등학생과 가족단위 희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지난 6월과 7월 1기 무용, 2기 연극 교육이 진행되었다. 오는 9월에는 3기 뮤지컬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3기 참여자들은 보컬, 댄스,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뮤지컬이란 주제로 융복합 예술 감상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뮤지컬의 역사, 발성법과 호흡법, 〈별주부전〉 뮤지컬 해석과 무대미술 체험, 무대예절과 무대 활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뒤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종합해 무대에서 실제로 공

연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통당 뮤지컬 학교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당진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당진예술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을 맡았다.



// 올 가을 이 공연 뮤지컬 <빨래>

올 가을, 가장 따뜻한 위로



공연 4000회, 60만 관객이 함께한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빨래>가 올 가을 당진을 찾는다. 아름다운 음악과 깊이 있는 가사, 탄탄한 스토리로 무장한 뮤지컬 <빨래>. 화려한 수식 없이도 오픈런으로 12년째 공연되고 있는 이 공연은 한국 예술종합학교 졸업공연으로 기획되어 흥광호, 임창정 등 거쳐 간 배우만 150여 명이다. 특히 수많은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과 창작 뮤지컬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한 공연이다.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살아요"

뮤지컬 <빨래>는 서점 비정규직 직원 나영과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 솔몽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팍팍한 서울살이와 사랑을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나영은 빨래를 널러 올라간 옥상에서 우연히 이웃집 몽골 청년 솔몽고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이름이 '무지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반갑다고 말하는 솔몽고.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던 두 사람은 바람에 날려간 빨래를 계기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한편, 두 사람 모두에게 꿈을 좇아 시작한 서울살이는 팍팍하기만 하다. 나영은 부당 해고에 맞서다가 자신도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솔몽고는 인종 차별에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된다. 이야기는 빨래만 봐도 그 집 사정을 알 수 있다는 달동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배우들은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빨래>는 외롭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웃음과 눈물,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뮤지컬이다.

각종 시상식 수상, 교과서 수록으로 작품성 인정 받아

뮤지컬 <빨래>는 관객들에게 받은 사랑만큼 각종 시상식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5년 초연으로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사상과 극본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검증받은 동시에 아름다운 음악과 깊이 있는 가사, 힘이 있는 스토리로 대중성을 확보했다. 이후 2008년 SFCC Awards 외신기자상, 2010년 제4회 더 뮤지컬 어워즈 극본상, 작사/작곡상을 수상했다. 고등학교 문학(창비출판사), 중학교 국어(대교출판사)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진출

한편 전국 투어는 물론 일본까지 진출해 관객과 평단에 호평을 받으며 소극장 뮤지컬 해외 진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무대에도 진출해 초청공연을 성황리에 마친데 이어 올해는 라이선스 공연으로 제작되어 여름동안 중국 베이징 다인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낙엽 지는 가을, 마음을 어루만져 줄 가슴 따뜻한 드라마, 뮤지컬 <빨래>가 기대된다.

- 공연 : 9월 16일 토요일 19시
-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공연문의 : 041)360-2911~4
- 티켓 3만원~ 1만원

// 올 가을 이 전시 <당진문예의전당 기획전시>

구필화가, 박정 초대전

인간 내면의 창 '시선'을 화폭에 담아
11월17일부터 24일까지, 당진문예의전당



인간 내면의 창(窓)인 '시선'을 화폭에 담아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필화가이자 당진 지역 작가인 박정 작가의 기획초대전이 늦가을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열린다.

박정 작가는 사고로 인한 전신마비로 손을 사용하지 못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다.

그는 오랫동안 '시선'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박 작가는 언론을 통해 "작품 속 인물(혹은 동물)이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모습 자체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며 "관객들이 그림 속 인물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당진문화재단은 당진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 대표 구필화가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박정 작가의 작품들을 일별하고 작가의 삶과 작품활동을 전 시함으로써, 지역 시각 예술계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기획의도를 밝혔다.

박정 작가는 대구대에서 회화과를 전공하고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초대전과 개인전, 그룹전 등을 통해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2017년 한국구상대제전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ART SEOUL 특별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당진 우강에 거주하며 세계구족화회, 한국미술협회, 당진미술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정 초대전>은 11월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열린다.



당진문화재단 뉴스 (5~8월)

7080레전드(이광조)콘서트



5월 마지막날,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에는 7080 레전드 가수 이광조 씨가 무대에 올랐다. 이광조 씨와 특별게스트 윤중식 씨는 90분 동안 관객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유쾌한 입담과 추억의 노래들을 선사했다.

에라도르음악그룹'가우사이'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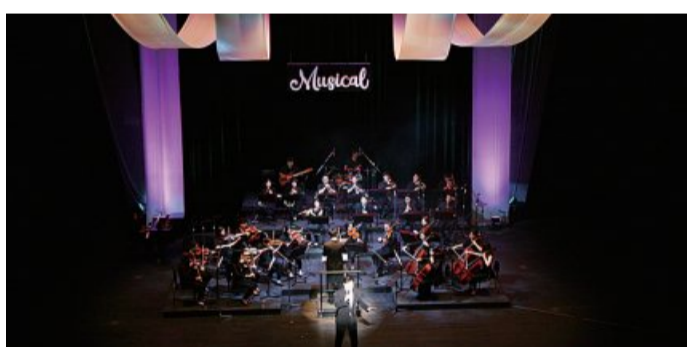


지난 6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잉카의 후예, 에라도르 음악이 당진에 울려 퍼졌다.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초대된 에라도르음악그룹 '가우사이'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은 새로운 문화와 음악을 즐기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강은일, 해금플러스의 <오래된 미래>

7월26일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강은일과 해금플러스의 <오래된 미래>가 공연됐다. 해금연주가 강은일과 전통기반 월드뮤직단체인 해금플러스가 출연한 공연은 해금 선율이 갖고 있는 넉넉한 호흡과 다소 거친 듯한 느낌을 주는찰현악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

당진문예의전당 회원음악회 '뮤지컬 스페셜'



지난 6월20일 당진문예의전당 회원들을 위한 특별공연이 진행됐다. 2017 당진문예의전당 회원음악회는 <뮤지컬 스페셜>이라는 타이틀로 펠리치타 오케스트라(지휘 유남규)와 출연진들이 영화, 뮤지컬 음악을 선보였다.

프랑스 국립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프랑스 국립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OPS)의 첫 내한 공연이 당진에서 펼쳐졌다.

지난 6월29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OPS의 공연은 그야말로 감동의 무대였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OPS는 그 명성만큼 세계적인 실력의 연주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특히 이날 한국 1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협연자로 나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제4회 2017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당진문화동아리주간사업 2017 생활문화예술제가 당진문예의전당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4회를 맞이한 생활문화예술제에는 지역 내 50여개 문화예술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펼쳐 보였다. 특히 참여 동아리들은 스스로 추진위원단을 구성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당진문화재단의 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축제 전에 실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도 제



공받았다. 올해는 래리티어린이음원단, 리턴즈, 민화이야기, 힐링그라피가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었다.

태진아와 송대관의 <Hello 당진>



양성평등주간 기념 그랜드콘서트 <Hello 당진>이 지난 7월1일 공연됐다.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 주최, 주관한 이번 콘서트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련되었다.

콘서트에서는 중장년층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두명의 가수, 태진아와 송대관이 만드는 유쾌한 무대가 펼쳐졌다. 관객들은 두 가수의 히트곡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뮤지컬 <천변카바레> 공연



불멸의 가수 배호, 그의 음악이 흐르는 뮤지컬 <천변카바레>가 지난 7월15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공연됐다. 뮤지컬 <천변카바레>는 1970년 청계천변에 있는 천변카바레에서 주인공들이 겪어가는 사랑과 배신, 웃음과 눈물의 드라마가 지금 들어도 세련된 클럽 음악과 함께 한편의 쇼로 그려졌다. 이날 관객들은 배호의 음악을 비롯해 70년대의 추억과 향수를 만끽했다.

한여름 밤의 향연, 치맥콘서트



무더위가 기승을 무리던 지난 8월4일 열대야를 잊게 할 이벤트가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당진시민을 위한 한여름 밤의 향연이란 이름으로 치맥콘서트가 개최됐다. 치맥콘서트인 만큼 당진생활음악협회에서 치킨과 맥주를 관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어른들을 위한 음악 공연과 아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되어 관객들은 오감만족 콘서트를 즐겼다. 치맥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됐으며 당진문화재단과 (사)한국생활음악협회 당진지부가 공동 주최, 주관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추진

당진문화재단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올 가을부터 추진한다. 송악중학교와 신평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웹툰, 방송댄스, 뮤지컬로 매주 1회씩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당진의 경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다.

2017 인문학포럼 지원사업 <당진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지난 8월 17일 당진YMCA <당진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가 당진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홀에서 열렸다.

콘서트에는 러시아 아쿠티아공화국 국립음악원(음악감독 노태철)의 초청 공연과 더불어 심상중 한양대 음악대학 관현학과 겸임교수와 김고운 피아니스트, 정정자 오카리나 전문지도 강사, 당진환경운동연합 주부환경지킴이로 구성된 난리부르스가 특별 출연해 공연을 선보였다.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러시아 아쿠티아 국립음악원 부총장 노태철 교수가 청소년과 음악예술 세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연 중간마다 정정자 강사가 '청소년 삶에 음악이 필요한 이유', 난리부르스 유내영 씨가 '청소년 시기에 음악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지역 문화예술기획자모여, 현장 견학



지난 7월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2017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당진관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기획자 및 예비문화기획자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참가비 무료로 당진문화재단과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가 주최, 주관했다.

참가자들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배다리문화마을, 인천아트플랫폼, 차이나타운, 한국이민사박물관, 하버파크 호텔 등을 견학하고 원도심 문화와 도시재생, 문화기획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여름밤, 악기들의향연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지난 8월 17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한여름 밤, 악기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유럽 최고의 챔버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명성을 얻고 있는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는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는 단원들이 모여 실내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됐다.

당진, 차의길을 열다

소외예술장르 활성화 지원사업 <시나브로>

당진문화재단이 소외예술장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진, 차의 길을 열다'를 진행했다. 지난 8월9일부터 31일까지 당진문화예술학교와 다원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당진 차문화 아카데미, 다도구 플라마켓, 다레시연과 다담시간, 다도 퍼포먼스 등의 행사로 이뤄졌다. 다도에 관심있는 당진시민들이 참여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당진문화재단과 진다선재에절원이 공동 주관했다.

>>> 당진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계 장르별 균형 발전과 시너지는 소외예술장르를 발굴해 보존하고자 소외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시나브로>를 추진하고 있다.



2017 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미술로 풀어보는 우리동네 환경 이야기

사회적 이슈인
폐기물을 재 활용한
정크아트와
업사이클링 아트를
주제로한
이론, 실습, 감상 수업과
미술관 견학을 통한
관람예절 습득 및
작품 이해능력 배양시키는
융 복합 미술 프로그램



2기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2017.9.12.~9.27

『접수방법』
방문) 당진문화예술학교
전화) 350-2938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팀)

기간 : 2017년9월30일~10월28일
(매주 토 13:00~16:00)
장 소 : 당진문화예술학교 내 미술실 2
대 상 : 당진 관 내 초등학교 4~6학년
인 원 : 30명 / (전액 무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교육일정표

미술로 풀어보는 우리동네 환경 이야기

기수	회차	교 육 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1기	1	2017.09.02.토	13:00~16:00	정크아트의 개념	예술학교 내 미술실
	2	2017.09.09.토	13:00~16:00	작품 감상방법 알아보기	예술학교 내 미술실
	3	2017.09.16.토	13:00~16:00	미술관과 관람자에 대한 이해	예술학교 내 미술실
	4	2017.09.23.토	13:00~16:00	미술관 전시 관람	미술관 (외부수업)
2기	1	2017.09.30.토	13:00~16:00	정크아트의 개념	예술학교 내 미술실
	2	2017.10.14.토	13:00~16:00	작품 감상방법 알아보기	예술학교 내 미술실
	3	2017.10.21.토	13:00~16:00	미술관과 관람자에 대한 이해	예술학교 내 미술실
	4	2017.10.28.토	13:00~16:00	미술관 전시 관람	미술관 (외부수업)
3기	1	2017.11.04.토	13:00~16:00	정크아트의 개념	예술학교 내 미술실
	2	2017.11.11.토	13:00~16:00	작품 감상방법 알아보기	예술학교 내 미술실
	3	2017.11.18.토	13:00~16:00	미술관과 관람자에 대한 이해	예술학교 내 미술실
	4	2017.11.25.토	13:00~16:00	미술관 전시 관람	미술관 (외부수업)

※ 매 기수 전시 관람수업은 전시 일정에 따라 시간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허영상

Hur Young Sang Invitation Exhibition :: 비상

허영상 廬

2017
당진문예의전당 기획초대전
운산 허영상 서예展

2017
9.15 金 - 21 木

招待日時 2017. 09. 15. 金. 18:00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1·2전시실

당진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충남 당진시 무수동 2길 25-21
문의 | T 041. 350. 2911-4 www.dangjinart.kr
입장료 | 무료 관람시간 | 10:30 - 19:30

주최 · 주관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기 · 획 · 문 · 예

경기도립국악단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공돌이역행

시즌 3

동화작가
미야엘 앤드
관동이 워셔블의 여행
오리본작



2017. 10. 27. FRI 11:00 / 28. SAT 14:0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 전석 5,000원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 문의 | (041)350-2911-4 | 예매 | www.dangjinart.kr | (할인정보) 문화회원 5%할인, 단체관광 특별할인(별도문의)
|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주관 |  당진문화예술학교  경기도립국악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당진문화재단